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문 동 신 군산시장

동북아 국제관광도시 기반 구축

"올해는 그동안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발전의 상승세에 가속도를 더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새해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의 비전을 향해 진취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서민생활 안정과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확실한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새해포부를 밝혔다.

기업유치·일자리 창출

우선 경제부문의 경우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한다. 기능인력 양성과 녹색성장을 위한 R&D 사업, 항만물류의 확대와 새만금시대 대외협력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강화하고 농·수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산단의 최대 취약점인 전력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산시는 지난해 4월 새만금 개통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며 1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군산시는 관광객 유입의 장기전략으로 새만금과 고군산군도, 은파관광지, 금강의 백제권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부터 신시도~야미도 구간의 해안길과 근대문화유산, 영화촬영지를 테마로 하는 '탁류길' 등 도보여행코스를 조성하게 된다.

또한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사업추진을 비롯해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 ▲새만금 주변 오토캠핑장 조성 ▲고군산 리조트형, 비응항 레포츠형 관광 마리나 시설개발 ▲야미도 어촌어항 관광단지 및 은파관광지 조경휴게소 공사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경암동 '폐철도 추억의 탐방길' 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부문은 노인과 여성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육아정책을 강화하고 시민건강을 위한 지원과 시설을 확대하게 된다.

교육·체육 부문은 평생교육을 내실화하고 세계교육도시 연맹과 교류를 강화하면서 교육발전 진흥기금의 증대와 운영을 확대해 나가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기 개발과 스포츠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부문은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유치로 심혈관 질환과 암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아울러 신축되는 보건소에서는 시민보건상담 등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 시장은 "돌이켜 보면 지역민들이 군산을 떠나는 이유는 직업, 교육, 미래비전 부족 등 3가지 때문"이라며 "그동안 기업을 유치하고, 전국 최초로 교육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는 등 꿈과 희망이 가득한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서민생활 지원 강화

이러한 결과 민선 4기 이후 395개 기업을 유치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감소하던 인구가 늘어 지난해 10월 말에는 27만명을 회복했고 그동안 교육의 불모지였던 군산의 교육여건이 개선되는 성과를 올렸다.

문 시장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군산은 한동안 낙후와 침체가 지속돼 도시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혁신적인 사고와 노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시장은 "새만금시대를 맞아 '풍(豊), 화(和), 격(格)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가 되는데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새만금 롄윈강 연계 중국특구로 조성

〈連雲港〉

2016년까지 장쑤성 잇는 항로 개통

카지노리조트, 물류·보세단지 조성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4일 "올해는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로 새만금지구를 중국특구로 조성하는데 전력할 것"이라며 차이나플랜의 구상을 밝혔다.

김완주 지사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대(對) 중국 전진기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전북의 새만금은 중국 장쑤성(江蘇省)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17년간 우호협력을 맺어온 만큼 중국특구로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새만금과 장쑤성 롄윈강(連雲港)에 한·중 공동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으며 조만간 장쑤성을 방문해 이 같은 계획을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중국특구는 2011~2013년 남단에 관광특구를, 북단에 산업특구를 조성하고 2014~2016년 장쑤성과 새만금을 잇는 정기항로의 국제선 등 교통 인프라를 갖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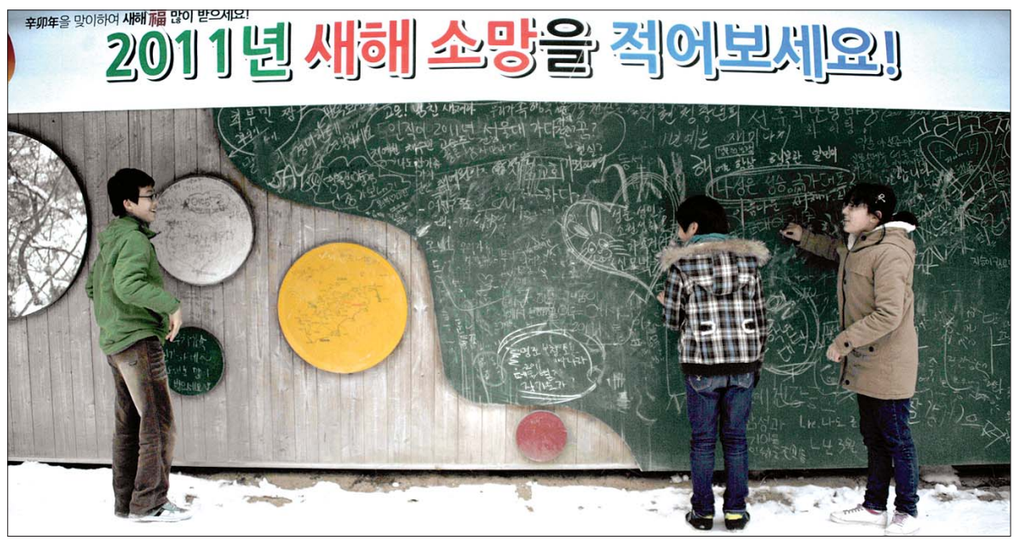
또 새만금 관광특구(가칭 아리울 차이타타운)에는 카지노리조트를, 롄윈강 특구(롄윈강 코리아특구)에는 물류와 보세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내부개발을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와 국토부 등 6개 부처가 관여하는 새만금 사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한 새만금 개발청 설립,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전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해 6천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 농어업 경쟁력 강화, 동부권 특화발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북도 새만금과 장쑤성 롄윈강의 특구는 일종의 '트윈시티' 개념으로 독립적인 자유무역지대 등과 유사한 특별자치구역 수준으로 추진돼 한·중 경제교류의 핵심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강철수기자 knews@



새해 소망을 적어보세요 4일 순창군 강천산 군립공원을 찾은 청소년들이 군이 설치한 대형 칠판에 2011년 신묘년 새해소망을 쓰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익산 고품질쌀 해외시장 공략

17.5t 호주 첫 수출

익산에서 생산된 최고급 쌀이 호주수출을 시작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섰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익산 탑 라이스(Top rice)'가 지난해 12월 29일 호주수출(17.5t)을 시작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수출되는 '익산 탑 라이스' 쌀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전국단위 브랜드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로 파종에서 수확까지 익산 용안에서 생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말 탑 라이스 42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전국평가에서 1위(국무총리상)를 수상했다.

익산시는 올해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 쌀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익산 쌀의 해외판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수출한 '탑 라이스' 쌀은 호주 시드니의 현지 교포와 최고급 일식집을 대상으로 판매된다"며 "이번 수출을 계기로 익산 쌀이 세계 최고품질임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전주시 조선시대 동헌·한옥 국내 첫 '한옥 컨벤션' 운영

전주시는 한옥마을로 옮겨 지은 조선시대 동헌(東軒·사진)과 옛 한옥을 하나로 묶어 각종 회의와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전통 한옥형 컨벤션'으로 운영한다.

동헌은 조선시대 전주판관(현 전주시장)의 집무실로, 일본 강점기인 1934년 매각돼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로 옮겨졌다가 지난 2008년에 전주시에 기부돼 한옥마을에 복원됐다.

또 한옥은 1932년에 김제에 세워진 독립운동가 장현식 선생의 집으로, 후손이 전주시에 기증해 동헌 옆으로 옮겨지었다.

전주시는 이들 건물을 연결해 각종 국내외 회의와 연수, 한옥체험, 숙박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물의 특성을 활용, 다산 정약용(1762~1836)선생의 리더십 등에 대한 특강을 하고 전통문화 캠프를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시청 강창수 문화정책 담당은 "가장 한국적인 연수가 이뤄지는 국내 첫 한옥형 컨벤션이 될 것"이라며 "한옥마을과 연계해 운영하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항 지난해 물동량 사상최대

1900만t 처리 전년대비 11% 증가

군산항의 지난해 물동량이 개항 111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군산 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2010년 1~12월 군산항에서 처리된 물동량은 총 1900만t으로 전년 대비 11%나 증가했다.

물동량 처리내용을 보면 수출이 483만t으로 전년도보다 130% 늘었고, 수입은 937만t으로 역시 전년도보다 120% 증가했다. 연안 물동량은 480만t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했다.

수출화물 부문에서는 완성차와 차량부품이, 수입화물 부문에서는 옥수수와 광석류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 연안화물은 국내 건설업의 부진으로 시멘트와 모래의 물동량이 크게 감소했다. 특히 컨테이너는 10만3720 TEU, 자동차는 31만5966대를 처리해 군산항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품목으로 떠올랐다.

군산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올해는 6개 선석의 신규부두가 운영되고 컨테이너 및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00만t 화물처리 목표를 달성해 서해 관문항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정읍시 구제역 방역 강화

191개 자율방역단 구성

정읍시가 구제역 방역대책 본부장을 시장으로 격상하는 등 구제역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김생기 시장은 지난 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악성가축전염병의 근절없이 정읍축산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구제역과 AI에 대한 철통방역 체계를 구축,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예비비 4억5000만원을 들여 생석회와 소독약품 등을 구입해 농가에 지원했고, 10개 방역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공동방제단 24개과 자율방역단 191개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